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53장 나무와 열매

『산상설교』 하권 제53장, 인쇄 311~323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15~20

❓ 착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고, 나는 정말 '좋은 나무'일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앞 장에 이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서 출발한다. 이번 장에서는 교리보다 삶과 행실과 태도라는 '열매'를 다룬다. 먼저 '나쁜 열매'가 썩은 열매가 아니라 겉은 비슷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열매라는 점을 밝힌다. 이것으로 분별이 미묘한 일임을 보여 준다. 이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활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일이 아니라 본성이 바뀌는 일, 곧 중생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속에 있는 본성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다는 원칙을 세운다. 그 위에서 '왜 그렇게 사는가'라는 동기의 시험, 근본 교리가 없을 때 생기는 결함을 보는 소극적 시험, 팔복과 겸손을 보는 적극적 시험을 차례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 심판자이시니 내가 좋은 나무인지 확인하라고 촉구하며 마친다.

📜 절별 정리

📜 1. "비판하지 말라" 다음에 왜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가

많은 사람이 이 단락을 어려워한다. “비판하지 말라”(7:1)는 말씀 바로 뒤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 지점을 이용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비판적이거나 엄격한 말은 조금도 하지

본문을 정직하게 다루지 않으면 산상설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남을 판단할 때는 내가 판단받을 기준을 스스로 세운다는 사실도 함께 깨달아야 한다.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16절)로 시작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20절)로 끝맺으신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신 것은 그만큼 이 분별을 강조하신다는 뜻이다.

1. '비판 금지'는 분별 금지가 아니다
2. 거짓 선지자는 엄격한 말을 싫어한다
3. 남을 재는 기준으로 나도 재진다
4. 16절과 20절의 반복은 강조다

마태복음 7:1

흠잡는 비판은 금하지만 분별까지 금하지는 않는다는 문맥의 출발점

>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2

내가 비판하는 기준으로 나도 비판받는다는 경고

>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15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곧 분별의 어려움

>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태복음 7:16

“열매로 알리라” 분별 원칙의 첫 선언

>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 2. '나쁜 열매'는 썩은 열매가 아니다

로이드 존스는 먼저 기술적인 점 하나를 짚는다. '나쁜'(corrupt)이라는 말의 뜻이다. 이 말은 '썩은'이 아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무는 애초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비교하시는 것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서로 닮은 두 나무다. 하나는 쓸 만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다른 하나는 품질이 떨어지는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는다. 이 점을 놓치면 주님이 가장 강조하신 '미묘함'을 놓치게 된다. 거짓 신앙은 눈에 띄게 썩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1. 'corrupt'는 '썩은'이 아니다
2. 품질이 떨어지는 열매라는 뜻이다
3. 겉모양이 거의 같은 두 나무의 비교다
4. 분별의 핵심은 '미묘함'이다

> **마태복음 7:17**
>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각기 다른 열매를 맺음
>
>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 **마태복음 7:18**
> 나무의 성격과 열매의 성격은 어긋날 수 없음
>
>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앞 장에서 교리를 다루었으므로 이번에는 실생활과 행실과 태도를 본다. 그 전에 로이드 존스는 원칙 하나를 세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중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위험한 것은 새 존재가 되지도, 내적 생명을 받지도 않은 채 생활에 무언가를 덧붙여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태도다.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권능을 행한 사람(22절)도 정작 자신은 변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 봉사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것이 중생의 교리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인격의 중심이다. 주님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마태복음 12:33)라고 하셨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다(마가복음 7:20). 문제는 잔과 접시의 겉을 씻는 일이 아니다. 교리에서도 마찬가지다. 거짓 선지자는 크게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이 그들에게 빠져 있다. 그 빠진 자리를 보아야 정체가 드러난다.

1. 신앙은 덧붙임이 아니라 본성의 변화다
2. 이것이 중생의 교리다
3. 변화 없는 봉사는 가치가 없다
4.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인격의 중심이다
5. 거짓 교사는 '빠진 강조'로 드러난다

> **마태복음 7:22**
>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
>
>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 **마태복음 12:33**
> 나무의 품질이 열매를 결정한다는 같은 가르침
>
>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23:25

잔과 접시의 겉만 씻는 외식(설교에서는 장절 없이 암시)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 4. 본성은 반드시 드러난다 — '일시적 신자'

첫째 원칙은 신앙과 생활이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행한다. 아무리 조심해도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드러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는 말씀은 절대적인 선언이다. 얼마 동안은 속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청교도들은 이런 사람을 '일시적 신자'라고 불렀다. 회개하고 거듭난 것처럼 보이고 바른말을 하며 생활도 달라진 듯했지만, 나중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분명히 드러난 사람들이다. 베드로는 이들을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씻은 돼지가 진창에 도로 눕는 모습에 빗댄다(베드로후서 2:22). 그리스도인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 사람이다(베드로후서 1:4). 반면 일시적 신자는 겉의 '더러움'만 씻은 사람이다(베드로후서 2:20). 본성이 변하지 않은 표면의 청결도 있다는 뜻이다. 참된 증거가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지만 우리는 분별이 더디다. 로이드 존스는 덧붙인다. 참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럴듯한 가짜 기독교다. 오늘 가장 큰 문제도 교회의 세속적 상태다. 그러니 진단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작해야 한다. 좁은 문 밖에 서서 “이 길로 오시오”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열매를 살피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1. 사람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행한다
2. 일시적 신자는 겉만 씻은 사람이다
3. 진짜 증거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4. 최대의 적은 가짜 기독교다

마태복음 7:16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음, 본성과 열매는 분리되지 않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베드로후서 2:22

씻은 돼지가 진창으로 돌아감, 본성은 그대로인 일시적 신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20

겉의 '더러움'만 피한 사람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베드로후서 1:4

참 신자는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7:13~14

좁은 문 밖에서 다른 길로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배경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본성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고 맙니다.”

📜 5. 전반적 시험 — "왜 그렇게 사는가?"

그릇된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선량하고, 도덕 기준이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닐 수 있다.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로이드 존스가 내놓는 첫 질문은 “그는 왜 이렇게 사는가?”이다. 첫째 이유는 타고난 기질일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조용하고 공격성이 없어서 노력 없이도 온화한 사람이 있다. 둘째 이유는 어떤 도덕적 신념에 동의하기 때문일 수 있다. 로잘린드 머리가 『선량한 이교도의 결함』에서 분석한 '선량한 이교도'가 그런 사람이다. 흔히 “교회 밖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들 하지만, 뛰어난 도덕성 자체는 기독교와 상관이 없다. 헬라 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높은 도덕을 가르쳤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 여긴 복음의 적대자였다(고린도전서 1:23). 기준은 하나다. 그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나쁜 열매'다. 세상 눈에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이사야 64:6).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은 새 본성에서 솟아나는 것뿐이다.

1. 겉모습이 아니라 동기를 묻는다
2. 좋은 기질은 타고난 것일 수 있다
3. 선량한 이교도도 도덕 기준이 높다
4. 헬라 철학자는 도덕적이었지만 십자가를 거부했다
5. 신앙에서 나오지 않은 의는 더러운 옷이다

> **고린도전서 1:23**
> 도덕을 가르친 헬라인이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여김, 도덕성은 신앙의 증거가 아님
>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 **이사야 64:6**
> 새 본성에서 나오지 않은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
>
>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 6. 소극적 시험과 적극적 시험 — 팔복과 겸손

개별 시험은 두 가지다. 소극적 시험은 이것이다. 근본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생활에는 어딘가 참 그리스도인의 성격과 맞지 않는 곳이 반드시 보인다. 근본 교리란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하심, 죄의 깊은 악함, 모든 사람의 의는 무가치하고 우리는 구제할 길 없는 죄인이라는 십자가의 메시지다. 크게 악한 일은 하지 않아도 어딘가 좁은 길에서 벗어나 있고, 세상의 인생관과 맞닿아 있다.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각과 태도 전체가 세속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없다. 적극적 시험은 팔복의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겉보기에 좋아도 먹어 보면 신맛이 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로 말해도 같다. 이 열매는 그저 도덕적인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이며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궁극적 기준은 겸손이다. 이생과 세상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진리를 충분히 알지 못한 것이다.

1. 소극적 시험은 어딘가 남아 있는 세속성을 본다
2. 적극적 시험은 팔복의 증거를 본다
3. 성령의 열매는 좋은 나무만 맺는다
4. 죄인 의식은 온유와 겸손으로 드러난다
5. 궁극적 기준은 겸손이다

> **마태복음 5:3~9**
>
> 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는 열매의 목록인 팔복
>
>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성령의 열매, 도덕만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7:18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엇보다 궁극적인 기준은 겸손입니다."

📜 7. 무심할 때 드러나는 사람, 결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본모습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인 척할 수는 있지만 뜻하지 않은 순간에 본성이 나온다. 세속적인 사람은 위대한 교리를 말하고 무언가를 포기하며 살아도 그 말이 '무익한 말'이 된다. 주님은 무익한 말까지 심판하신다고 하셨다(마태복음 12:36). 그래서 설교의 내용보다 설교하는 태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태도가 그 사람됨을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심판과 구원을 말하면서 웃고 농담하는 설교자는 자기 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자기 자신과 인간의 능력과 개성을 신뢰하는 말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마태복음 11:29) 주님의 성품과 거리가 멀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감에 넘쳐 나서지 않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린도전서 2:3).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 판단하고 속더라도 하나님은 유일한 심판자이시며 결코 속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19절). 그러므로 남을 분별하는 일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좋은 나무인지 확인하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한다.

1. 본모습은 무심할 때 드러난다

3. 자기 신뢰의 말투는 주님 성품과 멀다
4. 바울은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
5.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12:36

무익한 말도 심판받음, 무심한 말이 본성을 드러냄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11:29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참 열매의 기준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고린도전서 2:3

자기주장이 아니라 떨림으로 섬긴 바울의 모범

>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마태복음 7:19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짐, 하나님의 최종 심판

>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무가 좋다면 필연적으로 열매 역시 아름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오해와 반론**

거짓 선지자

겉은 양처럼 그리스도인 같지만 속은 사람을 해치는 이리 같은 교사다.

열매

그 사람의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삶, 행실, 태도, 가르침의 결과다.

나쁜 열매(corrupt fruit)

썩은 열매가 아니라 겉은 비슷해도 품질이 떨어져 쓸 수 없는 열매다.

중생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사람의 본성 자체가 새로워지는 일이다.

일시적 신자

청교도들이 쓴 말로, 한때 회심한 듯 보였지만 결국 참 신자가 아니었음이 드러난 사람이다.

선량한 이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높은 도덕 기준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다.

팔복

마태복음 5장 3~10절의 여덟 가지 복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린 초상이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의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성품으로, 성령이 새 본성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다.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 “비판하지 말라”는 분별을 금하지 않는다. 주님은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알라고 거듭 명하신다.
- 나쁜 열매는 겉은 비슷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열매다. 그래서 분별은 미묘하고 세심해야 한다.
- 그리스도인 됨은 덧붙임이 아니라 중생, 곧 본성의 변화다. 속의 본성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다.
- 기준은 동기(신앙 때문에 사는가), 소극적 시험(남은 세속성), 적극적 시험(팔복과 성령의 열매)이다. 궁극적 기준은 겸손이다.
-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남을 분별하는 일과 함께 내가 좋은 나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